

시론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시간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흐름의 연속이다. 2025 을사년은 목(木)의 기운으로...

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됐고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마저도 비호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너트렸고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처형했으며 2010년 말에 시작된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를 축출했으며 한국에서는 1980년 4·19혁명,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한국은 지난 해 현직 대통령의 12·31 비상계엄 선포로 '서울의 밤'이라는 차이를 경험했지만 12·4 국회의 신속한 해체와 국민들의 투쟁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종사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얼굴을 두껍게 한 여당 의원들과 내각 관료들은 탄핵 심판 지연으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일선상의 안위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 반정(反正)은 군사를 동원해 실정을 범한 왕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을 세웠으며 중국 왕조시대에는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새 왕조를 창건했다. 맹자는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편에서 '제선왕(齊宣王)이 문알(問曰) 탕(湯)이 방결(放桀)하시고 무왕(武王)이 벌주(伐紂)라 하니, 有諸(유제) 있가. ...알(曰) 적의자(賊義者)를 위지잔(謂之殘)이니, 잔적지인(殘賊之人)을 위지일부(謂之一夫)니, 문주일부주의(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미문사군야) 니이다.'면서 역성혁명을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현장칼럼



장 미 영 광주남구가속센터장

동족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프랑스 법정은 뫼르쇠를 이방인이라고 판단하자, 사형을 선고한다. 뫼르쇠의 살인에 누구나 무죄나 가벼운 형벌을 예상했었는데, 사형이 언도된 이유는 뫼르쇠가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에 의하면 아무리 수사를 바꿔도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여자 등으로 시작하는 말은 차이를 전제하는 말이고, 이것은 차별로 이어진다.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라는 선의의 선량한 차별이다.

용하는 것에 머무르고, 다른 표현을 애써 찾았는지 묻고 싶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인 그대에게. 이처럼 지형을 가르는 표현은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한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말한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독자투고



한 적

특히 위험한 경우가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적하고 풍경이 멋진 시골길,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

가 많아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골길에서는 낮든 밤이든 항상 방어운전과 함께 안전운전(저속)이 꼭 필요하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가 많아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골길에서는 낮든 밤이든 항상 방어운전과 함께 안전운전(저속)이 꼭 필요하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속속 장례절차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연대 계속돼야

광주시 해의 자매·우호 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와 중국 광저우·다롄 등 전 세계 50여 곳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샌안토니오시 론 니렌버그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구칭지 총영사는 "모든 광주시민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비 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악성 게시 글은 중대 범죄로 규정,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제주항공 희생자 발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에도기간이 종료됐지만 연장 운영되는 합동분향소에 '잊지 않겠다'는 직접 쓴 편지와 국화꽃을 남기며 조용한 추모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 1위 전남 고흥사랑기부제 올해도 탄력 받길

전남도가 2년 연속으로 고흥사랑기부제 모금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24년 187억원으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정기부금 개발이 주효했다. 22개 시군의 노력, 출향도민과 사랑애(愛)서포터즈 등 뜨거운 성원도 어우러졌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이 전년보다 3배 늘었다.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이 반영됐다.

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기부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새로운 경험은 물론 만족감을 느끼고, 재차 동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다. 운영의 투명, 효율성을 제고하며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전남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산물 답례품을 주안 행사와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선보이는 등 홍보를 한층 강화하며 주민과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정착에 힘써야 한다.

그래픽 뉴스

작년 12월 외환보유액 4천156억달러...연말기준 5년만에 최소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로, 1월 말(4천15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작년 한해 전체로는 외환보유액이 2023년 말(4천201억5천만달러)과 비교해 45억5천만달러 줄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지만, 감소 폭이 2022년(-399억6천만달러)보다는 작았다. 아울러 각해 12월말 외환보유액만 보면, 작년은 2019년(4천882억2천만달러) 이후 5년만에 가장 적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